

예결위 감사수준 “장난 아니네”

무성의한 답변 태도·준비 소홀 일침... 국장들 진담

4일 이어진 대구시의회 제161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방불케 했다.

시의원들은 불용액, 이월액 등 주요 사안들마다 관련 법규를 제시하며 이유를 따져 물었다.

특히 몇몇 시의원들은 집행부가 미처 알지 못한 자료나 준비 하지 못한 질문을 쏟아내 관련 공무원들을 당혹케 하기도 했다.

때문에 예결위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시의원들의 질의가 나올 때마다 검토보고서를 살피고, 관련 규정을 찾는 등 부산을 떨어야 했다.

더구나 질의 도중 일부 간부들의 무성의한 답변태도와 준비 소홀에

는 가차 없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날 민자도로인 범안로 문제를 지적하던 이동희 시의원은 “민자 투자유치사업 관련 시청 매뉴얼(설명서)이 있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강경덕 건설방재국장은 “지침과 관련조례에 따라 민자 투자유치를 진행할 뿐 그런 매뉴얼은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곧바로 매뉴얼을 보이면서 “시청 공무원들도 모르는 매뉴얼을 본 의원은 어떻게 알고 가지고 있냐. 이것이 시행정의 현주소다”고 꾸짖었다.

이날 예결위에 참석한 환경녹지국, 건설방재국, 도시주택본부, 상수

도사업본부 등은 불용액과 이월사업에 대한 사유를 천편일률적으로 답변하다 호된 질타를 받기도 했다.

서중현 시의원은 “각 부서 국장들이 답변하는 기본자세가 엉망이다”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되레 의원에게 훈계조로 얘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윤원 예결위 위원장은 “오늘 질의에 대한 국장들의 답변을 보니까 의원보다도 해결의지가 없는 것 같다”면서 “1년에 한번 결산하는 자리다. 여기 앉은 모두는 250만 시민 대표인 의원들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성의 있는 답변태도가 아쉽다”고 했다.

지난 3일에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시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린 주요 부서로 지적되는 등 이번 예결위의 강도가 어느 때보다도 심해 나머지 관련 공무원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

/장영훈기자

yhjang@kbmaeil.com